

“시민 쓴소리가감없이 듣고 정책 반영”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공식 출범

출산보육·복지건강·재난안전 등 9개 분야 일반인 29명 성별·연령별·직능별 다양한 분야...여성·청년 비중 높아

광주시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자문기구인 ‘쓴소리위원회’를 출범한다. 이번 쓴소리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광주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속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위원을 모집한 게 특징이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선 7기 2년간 광주의 미래지도를 바꿀 많은 성과들을 창출했지만, 남은 기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시정발전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수 시민의 고언을 듣기 위해 쓴소리위원회를 기획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쓴소리위원회는 언론, 의회, 감사, 복합·집단지원 등을 통해 제기된 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소재와 주제 제약 없이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시 쓴소리위원회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각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해 출산보육·복지건강·재난안전 등 9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광주시와 소통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 일반시민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29명 위원 중 절반이 넘는 15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0~30대 청년도 31%인 9명이다. 또 장애인 1명이 참여해 그동안 소외될 수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청취와 제안·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해당 실국 및 실과별로 분류해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쓴소리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위촉된 위원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정이 타당행정에 서 벗어나 현실성을 갖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일반 시민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뜻과 바람을 정책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광주 쓴소리위원회가 광주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광주시·자치구·상인회 합동 전통시장 캠페인...마스크도 전달

광주시는 지난 19일 말바우시장 장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상인연합회, 말바우시장 상인회 등이 합동으로 말바우시장을 찾은 손님과 상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지속적인 점포 방역활동을 당부하고 마스크 1500장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기, 분무기 등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인회와 함께 상인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에 나설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에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도 전례 없이 위중한 상황”이라며 “상인들과 힘을 모아 시장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9일 말바우시장 장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 직원들. 점포내 지속적인 방역을 당부하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배부했다.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도심 재생과 공예산업 두 토끼 잡았다

‘대한민국 국토대전’ 우수사례 광주 공예산업과 도심재생을 연계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공공·문화건축물 부문 대한건축학회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공간에

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하는 행사로, 국토·도시·경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광주시와 남구는 양림동의 노후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4년간 평민마을 주변 낡은 가옥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며 공예산업 특화 공간을 조성해 왔다.

공예특화거리는 판매장, 체험관, 전시장, MBC 오픈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자기·나무·섬유·금속 공예 등 12개 공방이 입주해 관광객들에게 공예문화 체험을 제

공하는 등 특색 있는 운영으로 인기가 있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체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간을 가꿔나갈 공예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평민마을을 보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미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공예특화거리를 기반으로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고 양림동 내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농기센터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9월까지...기술·장비 등 지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평상시에는 기상상황 파악과 재해 취약지역 점검 등 상시 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피해 상황 파악 및 자치단체 등과 대책 마련,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술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 최근 일본과 중국 등에 쏟아진 폭우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관내 시설물 및 배수로 점검 ▲문자메시지 활용 기상정보 제공 및 재해 유형별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기술 알람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복구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강하 광주시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주에도 잦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논·밭두렁 배수로 정비와 비오기 전·후 적기 병해충 방제, 과수 지주시설 점검 등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직기강 확립 현장 감찰 강화

광주시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현장중심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시 분청, 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복부처리 및 개인별 복무 유의사항 준수여부와 불요불급한 회식·동호회 행사 등 사적모임(골프모임

등), 국내여행 자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읍무운전, 민원처리 지연, 업무소홀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실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강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치 완료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서 놀이시설 2094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으며, 2단계는 자치구에서 82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45곳에 대한

추진실태를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놀이시설 대부분은 양호한 상태였으며 도장 벗겨짐, 볼트 조임 미흡 등 경미한 시설정비도 176건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등록 놀이시설 25곳을 확인하고 양호한 시설에 대해선 등록조치했으며, 불량시설은 철거 및 폐쇄 조치하는 등 놀이시설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잔류 농약 초과 농산물 폐기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1건(992kg)을 압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 2123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적합 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

연구원은 올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문을 열면서 검사 건수와 검사 항목이

확대돼 부적합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현장 검사소 2곳에서 주야간으로 각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를 하고 있다.

정재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광주에 반입 및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주야간 검사 검사를 해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조정가</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 29억 5천</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평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